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로 추천 받아 출마하게 된 **건국대학교 영상의학과 문 원진**입니다.

저는 학회에서 정도관리이사, 수련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를 역임하며 학회 운영의 여러 축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신경질환 영상연구회장과 '신경영상의학' 교과서 공동편집위원장을 맡아, 학술 발전에도 힘써 왔습니다. 현재는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등 유관학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 학회의 고유한 운영 방식과 장점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성실히 응답하는 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신경영상의학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경퇴행질환, 뇌혈관질환, 뇌종양, 두경부질환 등 전 영역에서 진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신경·두경부 영상의 역할은 **단순한 판독을 넘어 치료 전 평가, 치료 후 안전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해석, 다학제 의사결정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진료와 수련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고유한 전문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신경영상의학전문의의 역할이 **분자영상과 정밀의료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회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학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고, 학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힘쓰겠습니다.

1. 전문성 강화 — 교육·수련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별 모듈 교육과 학회 인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온·오프라인 교육을 체계적인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이수자에게 학회 차원의 수료 인증 (Micro-credential)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존의 질환별·부위별 교육뿐 아니라 **다학제 협진 역량, AI 도구 활용, 의료정책 이해** 등 미래 신경영상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회 주도의 세부전공 인증 체계**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공의 연수교육이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신경영상 전임의를 위한 공통 교육 프레임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경로를 제시하여, 수련의 질과 다양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셋째, **연구회 중심의 학술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야별 연구회가 학회 표준지침과 권고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학회 명의의 전문가 권고를 적시에 제시**하여 학술적 권위와 대외적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2. 공동체 성장 — 모든 회원이 연결되고 지원받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학술활동의 균형을 맞추고, 맞춤형 학술활동을 강화하여,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과 비대학병원, 경력 초기와 중견·원로 회원이 모두** 학회 안에서 소속감과 참여 기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전문의와 다양한 진료환경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이 진단 자문, 커리어 설계, 연구 방향, 일과 삶의 균형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기관 공동연구 매칭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연구'에서 '학회가 연결하는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상자료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자료 축적 기능을 강화하고, 웹진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증례, 저널 리뷰, 회원 소식, 정책 이슈를 더욱 활발히 공유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역시 학문적 깊이뿐 아니라 교류와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친목·문화 프로그램과 가족 친화적 지원 방안 (예:돌봄서비스)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회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절차와 원칙에 기반한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 위상 제고 —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학회로 도약하겠습니다

학회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임상에 적용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임상학회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넓혀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영상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의 협력 속에서 신경영상전문의의 역할과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정책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키우겠습니다.

학회의 대외 협상력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유관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학회의 학문적 존재감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를 회원들의 연구·교육 기회 확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세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전공의와 젊은 전문의를 위한 세부전공 로드맵, 커리어 세미나 등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신경영상의학의 매력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학회가 회원 여러분께 **자부심과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발전이 곧 회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